



한국 역대 하계올림픽 첫 3관왕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안산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결승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옌레나 오시포바와의 경기에서 과녁을 쏘고 있다.

안산, 양궁 역사 새로 쓰다

개인전, 슈트오프 끝에 우승... 도쿄올림픽 개인전·여자단체전·혼성단체전 석권



여자 양궁의 막내 안산(20·광주여대)이 한국 하계올림픽 최초로 단일대회 3관왕을 차지하며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썼다. 올림픽 양궁에서도 첫 3관왕이다. 안산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벌어진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전에서 옌레나 오시포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슈트오프 끝에 세트 점수 6-5(28-28 30-29 27-28 27-29 29-27 10-8)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여자 단체전과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안산은 개인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한국 체육사를 새롭게 쓴 위대한 업적이다. 안산의 3관왕은 역대 한국 하계올림픽 단일대회 최하다. 동계올림픽에선 쇼트트랙 남자 안현수와 여자 진선유가 단일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적이

있다. 둘은 나란히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올림픽 양궁 역사에서도 최초 3관왕으로 이름을 날렸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남녀 각 2종목만 열렸지만 이번 대회부터 혼성단체전이 추가되면서 3관왕이 가능해졌다. 랭킹라운드를 1위로 통과한 안산은 선배 강채영(현대포리스), 장민희(인천대)가 각각 8강, 32강에서 탈락한 가운데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시상대 가장 위에 올랐다. 특히 결승전 상대였던 오시포바는 8강전에서 강채영을 꺾은 선수로 선배의 패배를 깨끗하게 설득했다. 시자부터 팽팽했다. 안산은 첫 번째 발을 8점에 넣었지만 연이어 10점을 쏘며 만회했다. 오시포바의 선에 걸린 두 번째 발이 9점으로 인정되면서 1세트는 28-28로 끝났다.

둘은 2세트에서 나란히 10점 행진을 벌이며 팽팽히 맞섰다. 안산이 조금 앞섰다. 안산이 세 발 모두 10점에 쏘는 반면 오시포바는 세 번째 발을 9점에 넣었다. 30-28로 안산이 이기면서 세트 점수 3-1로 앞서나갔다. 하지만 3세트를 27-28로 아깝게 내주며 다시 세트 점수에서 동점을 허용했다. 3-3. 4세트까지 27-29로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세트 점수 3-5로 뒤지며 벼랑 끝에 몰렸다. 그러나 역시 위기에서 강했다. 안산은 5세트에서 10점 2개를 쏘며 29-27로 승리, 세트 점수 5-5를 만들었다. 마지막 슈트오프를 통해 금메달을 가려야 했다. 안산이 10점을 쏘았다. 오시포바의 화살이 8점에 꽂히며 안산의 3관왕이 확정됐다. 안산은 준결승에 이어 결승에서도 슈트오프 승부를 승리로 장식해 강한 집중력을 자랑했다. /뉴스

테니스 꿈나무들의 '열전'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 1차대회 순창서 개최

새싹부 - 정승우 · 서승연
10세부 - 이상현 · 이에린
12세부 - 김동민 · 추혜성
각각 우승 트로피 획득

2차 대회는 20~25일 강원서

순창군이 코로나19의 난관을 극복하고 주니어 테니스 1차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쳐 스포츠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굳혔다. 1일 순창군에 따르면, 한국초등테니스연맹(KETF)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순창군이 후원한 2021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 1차대회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12세 이하의 선수가 참가 대상이고 접수 인원은 여름방학 기간중에 개최해 예년보다 100여명이 많은 440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새싹부, 10세부, 12세부로 나눠 각각 남·녀 단식, 남·녀 복식경기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주최측에서는 대회 참가선수, 임원, 코치, 학부모 등 모든 참가자가 PCR검사 음성확인증명을 제출하도록 했고 선수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선수 1명에 코치와 직계가족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통제했다. 또한, 순창군에서도 방역체코, 건강모니터링, 출입자 명부작성, 자체 스포츠방역단을 운영해 아침부터 경기가 끝날때까지 경기장 안팎을 꼼꼼하게 소독하는 등 방역관리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경기장 주변의 차량혼잡 등 사고예방



12세부 단식 우승한 김동민.

을 위해 차량을 전면 통제해 선수들이 몸을 풀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경기 후반부에는 폭염속에서 지친 선수들을 위해 인근 산속의 깨끗한 계곡물을 끌어와 잠깐 동안이라도 더위를 식히게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경기결과 ▲새싹부 단식우승에 남자 의정부 정승우, 여자 부천 서승연 ▲10세부 단식우승 남자 동성 이상현, 여자 군위 이에린 ▲12세부 단식우승 남자 제주북 김동민, 여자 군위 추혜성이 각각 트로피를 안았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가계팅은 골목없는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대회에 이어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2021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 2차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체육회, 도민체전 대표자 회의 토너먼트 종목 대진 추첨 진행

전북도민체전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도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제58회 전라북도 민체육대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토너먼트 종목 대진 추첨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진 추첨과 함께 일부 변경된 대회 방식 및 코로나19 방역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개·폐회식 없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일반부와 학생부 경기에서 일반부에서만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개최종목도 기존 38개 종목에서 35개 종목만 열리며, 각 종목별 순위만 매기고 종합순위(점수)는 없다. 한편 올해 도민체전은 당초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 도내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 /정은성 기자

김광현, 4일 애틀랜타전 선발 출격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8월 첫 상대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8월 4일 오전 9시15분(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타전의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로 김광현을 예고했다. 지난달 29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나섰던 김광현은 닷새를 쉬고 마운드에 오른다. 김광현은 애틀랜타를 위해 한 차례 상대해 4이닝 1실점을 기록, 패전의 멍에를 썼다. 지난 6월21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재회에서 설욕을 노린다. /뉴스

'좋았어!'... 펜싱 에페단체, 첫 동메달

3~4위 결정전서 중국에 역전승

한국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의 올림픽 역사상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첫 메달이 나왔다. 박상영(26·울산광역시청), 권영준(34·익산시청), 마세건(27·부산광역시청), 송재호(31·화성시청)가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달 30일 마쿠하리 메세 B홀에서 열린 도쿄 2020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 동메달결정전에서 중국에 45-42로 승리했다. 한국은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빠른 공격 공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패했다. 심기일전한 한국은 중국에 역전승을 거둬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에이스 박상영은 에페 개인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후, 단체전에서 사활을 걸었다. 올림픽을 위해 자신보다 더 준비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투지를 불태웠다. 스위스와의 8강전에서 경기 막판 역전극을

연출한 박상영은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9라운드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리우올림픽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상영은 2연속 메달을 거머쥐었다. 권영준은 1라운드에서 동차오와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2라운드에서 란빙하오를 상대로 박상영이 균형을 잡았다. 박상영은 전광석화 같은 찌르기를 앞세워 6-4로 2라운드를 마쳤다. 그러나 권영준, 송재호, 박상영이 중국 선수들에게 밀리면서 23-27로 역전을 허용했다. 송재호가 7라운드에서 29-32로 따라붙었고, 권영준이 8라운드에서 왕즈자이를 상대로 끈질긴 승부를 펼쳐 34-34로 동점을 만들었다. 마지막 9라운드에 나선 박상영은 동차오를 압도하며 리드를 잡았고, 1분 2초를 남겨두고 40-37로 달아났다. 박상영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동차오의 추격에서 벗어났다. 한국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 피스트에 울리와 포옹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뉴스



대한민국 남자 펜싱대표 선수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일본 자바 마쿠하리 메세 B홀에서 열린 남자 에페 단체 동메달 결정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동메달을 확정짓고 포옹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영, 권영준, 마세건, 송재호.

배드민턴 공희용-김소영 '잘 싸웠다'

여자복식 준결승서 중국에 패배
오늘 열리는 동메달 결정전서
이소희-신승찬 조와 맞대결

한국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5·전북은행)이 2020 도쿄올림픽 4강전 패배로 이소희(27)·신승찬(27·이상 인천국제공항)과 동메달을 다투게 됐다. 세계랭킹 5위 김소영·공희용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복식 준결승에서 천칭천-자이판(중국)에 0-2(15-21 11-21)로 졌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도 천칭천-자이판에 1-2(21-19 16-21 14-21) 역전패를 당했던 김소영·

공희용은 4강 재대결에서 실욕에 실패했다. 결승에 오르지 못한 김소영·공희용은 앞서 인도네시아에 패한 이소희·신승찬과 동메달결정전을 치르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을 확보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어 2대회 연속 동메달(정경은-신승찬)이다. 동메달 결정전은 2일 열린다. 1세트를 15-21로 내주며 끌려간 김소영·공희용은 2세트에서 9-11까지 추격했으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9-15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다. 결국 11-20 매치포인트에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했다. 앞서 열린 4강전에선 이소희·신승찬이 그레 이시아 폴라-아프리아니 라하유(인도네시아)에 0-2(19-21 17-21)로 졌다. /뉴스

고성장사씨름대회 '출사표'

정음 단풍미인씨름단, 서남군 등 총 9명 출전
6일까지 유튜브 '살바TV' 등 통해 생중계

내장산 단풍과 옥정호 구질초(한국관광 100선 선정)가 아름다운 정음시 소속 단풍미인씨름단이 2021 위더스제약 민속씨름고성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한다. 지난달 울주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과 제58회 대동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쾌조의 성적을 거둔 단풍미인씨름단은 이 기세를 몰아 이번 대회에서 첫 장사 배출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대회에는 김시영 감독과 조명신 코치를 중심으로 백두급 서남군 선수 등 총 9명의 선수가 정음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KBS N Sports와 유튜브 채널 '살바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유진섭 시장은 "7월에 열린 두 개의 대회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정음시를 전국에 알린 씨름단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최선의 기량을 펼쳐 라벤더·구질초 등 관광도시 정음의 향기를 전국에 퍼뜨려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영 감독은 "협대 씨름단의 사기와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라며 "이 흐름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